

해남군,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유입’ 기반 조성

산자부 건립 공모사업 선정
86억 투입·2027년 완공 예정
체육·문화 등 편의시설 갖춰
기업유치·인구유입 등 기대

해남군 화원조선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산단내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청년 근로자와 지역민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산단환경조성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화원산단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국도비 64억원 등 총 사업비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문화센터는 화원산단내 근로자들의 문화생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된다.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1300㎡ 부지에 연면적 930㎡, 지상 5층 규모로 식당과 다목적실, 체육시설, 문화지원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원조선농공단지에는 대한조선을 비롯해 21개 협력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 수 1299명, 2024년도 예상 연매출 1조원으로 명실상부 전남 서남권 경제를 이끌어가는 조선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농공단지 인력유입 및 활력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한조선에서 협력사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조선의 수주물량 증가로 상시 근로자가 약 300여명 부족한 상황이나 시설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력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기지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어 향후 단지내 근로 인력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66만㎡(20만평)과 화원산단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은 전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포함돼 오는 6월경 산자부의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기업유치·인구유입의 중대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단내 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영암·목포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이미 선정된 상황이다.

이번 센터 건립으로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위라벨 산단으로서의 활력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산단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문화와 휴식, 커뮤니티가 있는 농공단지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며 “화원산단은 향후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육성할 예정으로, 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치매환자 가족교실 ‘헤아림’ 운영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헤아림 가족 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교실은 치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의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돌봄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다. 치매 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교실은 오는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치매 관련 전문가가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치매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 치매 환자 돌봄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 등을 교육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치매안심센터(061-430-5294~5299)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 진단 후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돌봄 기술을 제공하며 원예, 공예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치매 인구가 증가하며 치매 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헤아림 가족교실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간 교류도 하고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6월5~11일, 생물자원 무료 교육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제3회 환경교육주간 동안 생물자원 무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환경교육주간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과 함께 환경 교육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나의 일상 속 녹색습관 길들이기’를 주제로 찾아가는 지구를 바꾸는 환경교실, 지구를 바꾸는 가족 환경교실, 생물독목 온라인교실 프로그램을 대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구를 바꾸는 환경교실’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 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6월6일 현충일과 8일·9일 주말에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과 자원관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녹색습관을 찾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학교·단체는 자원관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공문으로 접수 받고, 개인·가족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제주도 꽃자왈작은학교

제주도 어린이들이 신안을찾았다. 제주도 꽃자왈작은학교 오돌또기 소속인 어린이 10명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신안을 둘러봤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꽃자왈작은학교는 1996년 자연과 세상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했다. 틈새학교, 자연학교, 마을학교, 평화학교, 오돌또기 모임, 철리길 친구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안을 방문한 어린이는 5~6학년으로 이루어진 오돌또기 모임이다.

갯벌 해루질 체험, 증도-자은도-안좌도-퍼플섬-비금도-도초도-하의도를 찾아 읍·면 별 컬러마케팅 등 신안 지역 특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하며 서로 돕고 우정을 쌓으며 삶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문용포 꽃자왈작은학교 대표는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인데, 이번에 안좌도 마을학교 친구들과 교류 프로그램이 가장 뜻깊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섬 숲 경관복원
향토 수종 식재 등

완도군은 지난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4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면 청용리와 약산면 해동리 2개소이며 산림 분야 기후 대응 기금 16억 원을 투입한다.

섬 숲 경관 복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식생의 변화, 급증하는 병해충 피해 등 자연·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거나 증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군은 향토 수종인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 활엽수림을 약 5만 2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산림 다양성을 보전하고 탄소흡수원 확보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완도군은 기대하고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제주도 꽃자왈작은학교 어린이 10여명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신안군을 찾았다. 신안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염전체험, 갯벌 해루질 등을 경험했다.

신안군 제공

영암군, 청년·신혼부부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신청

다음달 3일부터

영암군은 오는 6월3일부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아파트 30호 입주자를 온라인 및 방문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은, 정주여건 개선 핵심사업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 공급 등이 취지다.

이 사업은 영암군이 건설·매입·임대·기부채납·협약 등 방법으로 공공주택 300호를 확보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최대 6년간 임대해 준

다.

이번에 임대할 공공주택 3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 공급 1차분으로 삼호읍 용양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온라인 ‘정부24’나 영암군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영암군은 신청을 받아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주자를 선정한 다음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9~49세 청년과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거나 입주일

전입할 수 있는 외지인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에서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주택관리팀(061-470-2451)에서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공공주택 임대는 이런 정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무안군, 도시 속 일상탈출 건강걷기 대회 성료

무안군은 지난 25일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4년 도시 속 일상탈출 건강걷기대회’에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 모두가 걷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위커블 시티 무안’ 조성에 발맞춰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걷기에는 남악 건강지도자, 16개 걷기 동아리와 남악·오룡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김대중광장을 기점으로 대죽도 외곽을 걸으며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무안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해 건강검진 안내, 심폐소생술 체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자살 예방사업 홍보, 금연·절주 홍보, 치매 예방 홍보 등 13개의

건강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해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홍보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속적인 건강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건강한 무안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무안군의 위커블시티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군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